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8월-동맹정진의 달

- 해대십의 극복
- 날마다 실천하기
- 정진의 방법
- 쉬운 수행

쉬운 수행

23일은 하안거 해제 날. 을 하안거 기간에도 여전히 전국 90여 선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여든 2천여 수행자들이 화두를 붙잡고 더위와 수마, 끊임없이 번뇌하는 자신과 마주 앉았다. 3개월의 하안거 수행은 이날로 끝이 났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흔히들 안거 기간이 끝나면 수행도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상당수의 스님들은 그동안 못 한 경학공부, 다시 화두 참선으로, 만행으로 안거 이후의 시간 역시 수행자의 본분 지키기를 위한 정진으로 이어 나간다.

특히 조계종의 수행가풍을 이어오고 있는 종립선원 봉암사는 등 하안거 외에도, 불

실제 수행하는 시간은 언제나 늘어난다. 56%가 '형편대로 한다'고 답했고, 31%가 '새벽'에, 12%는 '저녁'이라고 답했다.

소수의 네티즌 불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 설문 결과는 현재 우리 불자들의 신행태를 읽을 수 있는 표본 자료로 참고할 만하다.

과반수 이상의 불자들이 30분 미만이나 수행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정진에 마음을 쏟으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1시간 이상 수행하는 불자들이 26%나 된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불자들이 생활 가운데서 옹골 정진하고 있을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수행은 우리 삶 지탱해 주는 원동력

굳은 의지·노력으로 끊임없이 정진

과 가을 반계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안거가 끝난 뒤 보름간의 해제기간을 가진 후 달간 하루 14시간 가행정진하는 안거를 매년 어김없이 실시해 오고 있다. 봉암사의 수행가풍은 이렇듯 끊임없이 옹골정진하는 수행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자들 또한 이러한 수행자들의 의지와 생활을 거울삼아 쉽 없이 수행해야 한다.

본지가 지난 6월 둘째주 붓다뉴스 '불자의 생각'을 통해 네티즌 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자들은 하루에 참선이나 기도, 염불, 경전읽기 등 수행을 위해 평균 30분미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불자들 가운데 51%가 하루 30분미만 수행한다고 답했으며, 1시간미만은 22%, 2시간 이상은 15%, 2시간미만은 11%로 조사됐다.

이은자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28일 (수)

■전주 '세계소리대축제' = 국내의 156개 팀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향연이 9월1일까지 전주 시내 소리문화전당, 전통문화특구 등지에서 펼쳐진다.

■타베트 명상음악가 나왕캐족을 비롯, 권삼득 명창의 공연과 중국 최고의 공연단인 돈황예술극원의 공연, 소설가 최명희의 '혼백'을 주제로 한 창작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063)280-3324

■용진신행회 '성진순례' = 금강산 건봉사 부처님 지어사리 친견 순례.

건봉사는 조선시대 고승인 사명

대사의 시리를 봉안한 곳이자 처음으로 염불만회를 열었던 곳.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는 2만5천원.(02)2279-1191

8월 31일 (토)

■정신세계원 '명상음악 축제' =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에서 신비한 명상음악의 세계를 느낀다.

정신세계원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수리 두물위크숍에서 '인도 전통음악과 자연 친화력의 관계' 주제의 강연, 인도음악 연주그룹 '반디쉬'의 시범연주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02)747-7033

■원성스님의 '인도이야기' = 교보문고는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풍경>의 저자이자 동자승 그림으로 유명한 원성스님을 초청, 스님의 창작 이야기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원성스님과 만남은 최신작인 <시선>의 배경인 인도를 여행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02)397-3500

9월 1일 (일)

■영남불교대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 = 대구 영남불교대학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4층 법당에서 5주간 '가을맞이 청소년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능인중학교 김영진 교사의 '빠르고 쉬운 한습법', '대구 하나병원 성춘희 간호원장의 '성, 바로게 알아야 한다' 등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

보가 제공된다.(053)474-8228

■동화사 '지관스님 초청법회' = 대구 동화사가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스님을 초청해, 오전 10시 부터 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91년 가산불교문화원을 창립한 이래, 해인사 1200여년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가야산 해인사지> 발간 등 불교학 발전에 큰 힘을 쏟은 지관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에 대해 설한다.(053)982-0101

9월 2일 (월)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이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 = 이혼과 가정 해체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9월 2, 3, 9, 10일 4회 20시간에 걸쳐 이혼 등 가정불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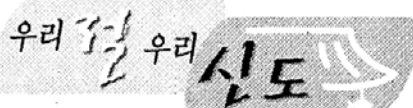
간을 마련했다. 여성학동변호사 협회 박정혜 변호사, 이동원 이대교수 등이 '가정폭력의 배경과 원인' '가부장적 제도와 여성인권' 등에 대해 강연한다.(02)738-5586

9월 4일 (수)

■경주박물관 '문화강좌' = 경주 박물관은 내년 2월 26일까지 제 18기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3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에는 박영복 경주박물관장, 강우방 이대 교수,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신라의 불교사상, 건축, 미술사, 역사학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2차례의 유적 및 문화재 답사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22만원.(054)772-5173

“낮가림 심한 분 우리절로 오세요”



서울 보현정사 김춘자 신도회장

“집 근처 법당에 가고 싶어도 낯설고 속스러워 사찰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면 꼭 우리절로 오세요.”

서울 서초동 보현정사의 김춘자(65·서울 여의도) 신도회장이 절일을 하며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초심자들이 부처님 법을 알고 싶어 사찰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마음 가짐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 김 회장은, 불자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낯선 곳에 처음 나와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0여년간 보현정사 신도회를 이끌어 오면서 한결같이 자신은 물론 간부들에게도 초심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친절함 안배를 강조해 왔다.

“하다못해 구경하는 걸인이 찾아와도 누구나 항상 친절과 미소로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사찰을 일단 한 번 찾은 사람은 비해서 자주 나오진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유지하는 편입니다.”

김춘자 회장과 보현정사와의 인연은 10여년 전 창건 때부터 시작됐다. 보현정사(당시에는 마하연 포교원) 초대 주지였던 해인사 정민스

님이 도심포교에 원력을 세웠지만 재정 문제에 부딪치자, 김 회장이 자신의 건물 중 4·5층을 기꺼이 보시하며 불사에 팔을 걷어붙인 것. 김 회장은 사찰 건립 후 주지 스님과 의논해 제일 먼저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했다. 주년이 교회로 돌려서 인 서초동 일대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 불사 밖에 없다는 믿음을 굳혔다. 한창 심 법사, 박완일 교수 등 불교계의 이름 있는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수요일마다 기초교리와 경전공부를

현재는 보현불교교양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를 열고 있다. 김 회장이 보현정사 신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10여년 한결같이 초심자 배려·친절안배

연내 어머니합창단, 실버타운 건립 서원

했다. 이런 포교 전략은 교육 수준이 높은 서초동 일대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고 대성공이었다.

교양대학을 개설한 후 2개월이 채 안돼 강의가 있는 날이면 법당이 비좁을 정도로 주민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이러한 열기는 보현정사가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



○김춘자 회장은 신도관리부터 청소, 공양간일, 화초 물주기 등 사찰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한다. 김 회장이 법당 앞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

미 교수(세종대 사회교육원)를 초청, '기월순환 마사지' 특강도 마련해 이를 배운 신도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처님 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정사의 신도들이 사회의 그늘진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봉사행위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사지 특강을 마련했지요.”

올해 안에는 어머니합창단도 결성해 음성포교에도 힘을 계획이다. 김 회장에겐 꼭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이 하나 있다. 경기도 인근에 니며 공양간일, 화초 물주기 등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한다. 또 5월부터는 기혈치료 전문가인 수암 옥지

우리절의 신도들 대부분이 보살들이라서 자칫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일력이 생길 법도 한데, 주지인 저와 신도들의 가교 역할은 물론 신도들끼리도 서로 우애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춘자 회장이 보현정사를 지키고 있는 한 신도들이 마음놓고 찾아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성공적인 불사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김 회장은 “언젠가는 부처님께서도 제 소원을 들어 주시겠지요”라며 활짝 웃었다. 김춘자 기자

주년의말

보현스님 보현정사 주지

김춘자 회장은 불심도 깊지만 자신이 배운 부처님 법을 몸소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참불자입니다. 특히 보현정사 신도들을 친 형제처럼 여기며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믿고 따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불자로서의 범주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지체없이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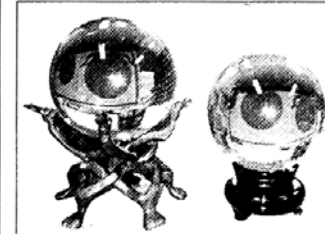
우리절의 신도들 대부분이 보살들이라서 자칫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일력이 생길 법도 한데, 주지인 저와 신도들의 가교 역할은 물론 신도들끼리도 서로 우애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춘자 회장이 보현정사를 지키고 있는 한 신도들이 마음놓고 찾아와 신행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에 1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성공적인 불사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김 회장은 “언젠가는 부처님께서도 제 소원을 들어 주시겠지요”라며 활짝 웃었다. 김춘자 기자

天下名品

수정은 예언, 집중력 향상, 건강증진 명상수련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天下名품을 소량 한정판매 합니다)



天下一品 (19cm)
판 매 가 : 200만원
특별판매가 : 45만원
(홍발참대 5만원 별도)

名品 (10cm)
판 매 가 : 33만원
특별판매가 : 25만원

◆수정구 사용법
·명상수련 예언 연측수련
·활강수련 소원성취
·만사행복 복부활기 영기통기 지극수련

50여년 전에 생산된 수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는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기수련, 건강증진, 소원성취, 명상, 예언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일찍부터 정정자들은 수정구로 예언 예측에 사용해 왔습니다 ◆
※ 천하명품은 중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이며 귀한분들에게만 선물하였습니다.

▶ 수맥, 명당찾기전자로, 피라미트

수맥, 운전, 지하수, 명당, 금광 및 지하자원 찾기

전자로드(1Set)	350,000원
전자로드(1개)	180,000원
·L로드	20,000원
·수정주	45,000원
·펜드립	10,000원
·순통L로드	40,000원
·피라미트	350,000원

韓國氣研究院
☎ 02) 455-6944

발건강법

차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수험생, 산후조리
- 손, 발, 어깨, 무릎,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배꼽다이어트 쉼

★수원완제품 ★일본대기업!!!

- 일본에서 매일 60만개가 팔리는 히트상품!
- 이학박사 "사카이 미즈후" 증언
- 배변원활, 체중감소, 허리나선, 냉증

간단히 배꼽에 부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복부가 따뜻해지고 배변이 원활합니다.

◆ 500분에 한하여

수액시트 2BOX(160,000원)를

주문하시면 무료증정

※ 별도 구입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상담해 드립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김건순

☎ 02) 453-5851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 성광수씨 (주)수신토종오가피 대표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질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면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푼지 함종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7-5300